

• 목 차 •

- 2 포커스
아주대의료원 보직자 임명
- 3 선인재 칼럼
Fairness
- 4 인제법첩
성형이야기
- 8 의학 리포트
자궁내막증, 자궁내막폴립
동반하는 경우 많아
- 9 나의 연구 나의 테마
음식알레르기 고생하는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 10 진료교실 I
여름철 열대야 피로 어떻게
해결하나?
- 11 의료정보
전기생리검사, 부정맥 정확하게
진단 및 치료
- 12 내기 꿈꾸는 의료인
생사의 기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 13 AMON NEWS
- 18 진료교실 II
어지럼증 70~80%는 귀속 이상,
「전정재활치료」 치료효과 높아
- 20 잊을 수 없는 환자
아름다운 청년
- 21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하늘같은 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 22 잘못된 건강상의
뇌동맥류 파열은 뇌수술부에는
없는가?
- 23 아주대병원 100% 활용하기
아주대병원 장려수상장
- 24 건강 Q&A
-시력 교정렌즈에 대해 알고 싶습니
다
-요관결석의 의심됩니다
- 26 응급저지 이빨엔 어떻게
낙뢰사고시 응급처치법
- 27 진료서간담

감동을 주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 아주대병원전공의협의회에서 소아암 환아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6월 의료원에는 그동안의 가뭄을 해결 할 단비소식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미담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우선 아주대병원 인턴, 레지던트의 모임인 전공의협의회가 아주대병원에서 암으로 투병중인 조경민군과 박현중군에게 각각 항암치료비용 300만원, 골수이식 수술비용 400만원을 기증했습니다. 이번 성금 기증은 지난 5월 아주대병원 소아암 환아 부모모임인 온누리회의 야유회에 참가했다가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공의협의회에 알려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소식을 듣고 함께 동참기로 결정, 아주대병원에서 치료중인 정도원 환아의 골수이식 비용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본원 시설관리팀 이명원 직원의 자녀 이종현군의 백혈병 투병과 관련해 의료원 교직원이 동참해 준 소식입니다.

이종현 군은 작년 11월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고 투병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골수공여자를 못찾다가 최근 일본골수은행협회로부터 골수 공여자를 확보했지만 3,000만원이라는 수술비가 커다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교직원들 뿐만 아니라 의료원내 근무하는 용역직원들까지 한명 한명 정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1,018명이 모은 골수이식수술비용 1300여만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점만을 시대이지만, 고개를 돌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짐을 나누려는 모습은 보는 이를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주대병원도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대의료원 보직자 임명



▲ 서정호 의무부총장



▲ 김효철 학장



▲ 홍창호 병원장



▲ 강원형 의과학연구소장



▲ 김영수 의학문헌정보센터소장



▲ 왕희정 의학부장



▲ 김병석 교육수련부장

최

근 서정호(徐廷鎬) 신임 의무부총장, 김효철(金孝哲) 신임 학장, 홍창호(洪昌虎) 신임 병원장에 이어 의과학연구소장 등 의료원 제반 보직자가 임명되었다.

6월19일부로 의과학연구소장에 강원형(姜元馨) 교수, 교육수련부장에 김병석(金炳奭) 교수가 임명되고, 이에 앞서 6월11일부로 의학문헌정보센터소장에 김영수 교수가, 의학부장에 왕희정 교수가 임명되면서 그동안 기관장 및 보직자의 공백상태로 야기된 사안들이 급속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의료원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호 의무부총장은 64년 연세 의대를 졸업, 연세의대 방사선과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을 거쳐 93년 아주의대로 부임하면서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제2대, 3대 병원장을 봉직한 바 있다.

김효철 학장은 67년 연세 의대를 졸업 미국 Robert Wood Johnson 대학 의대 교수를 거쳐 94년 아주의대로 자리를 옮겨 암센터 소장 및 내과부장을 겸임해 오고 있으며, 홍창호 병원장도 75년 연세 의대를 졸업 연세의대 소아과학교실 부교수로 봉직하다가 94년 아주의대로 자리를 옮겨 진료부원장, QI 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강원형 의과학연구소장은 피부색소질환 전문의로, 76년 연세의대를 졸업후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지난 93년 아주대학교로 자리를 현재 피부과학교

실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으로 봉직해 오고 있으며, 김영수 의학문헌정보센터 소장은 비뇨기질환 전문의로, 고려의대를 졸업 후 영남의대를 거쳐 지난 94년 아주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으로 봉직해 오고 있다.

왕희정 의학부장은 간질환 및 간이식 전문의로, 연세 의대를 졸업후 인제 의대를 거쳐 지난 94년 아주대학교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까지 수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간이식을 주도하고 있다.

김병석 교육수련부장은 골종양 및 골대사질환 전문의로, 80년 한양의대를 졸업한 후 육포대우병원 정형외과 과장, 수련부장, 진료부장을 거쳐 지난 94년 아주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현재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으로 봉직해 오고 있다.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앞서 서정호 신임 의무부총장은 『그동안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교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보직업무수행을 미루어 왔으나 의료원의 당면과제인 의약분업 대처방안, 노사협약, 시설장비 노후화 등 누적된 과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의료원 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들이 상호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